

SNS를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

박소영*, 조성희**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Formation of Social relationship through SNS and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So-Young Park*, Sung-Hui Cho**

Associat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Semyu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Hyupsung University**

요 약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SNS 이용 증가로 인한 사회적 관계 형성은 중요해지고 있다는 인식 하에서 본 연구는 SNS를 통해 형성된 교량적 사회적 자본과 결속적 사회적 자본, 실질적 정치사회 참여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2년 실시한 2012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데이터 중 주요변수에 모두 응답한 4,708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여학생에 비해서 남학생의 삶의 만족이 높고, SNS를 통해 형성된 교량적 사회적 자본과 결속적 사회적 자본, 정치사회참여의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증가했으며, 세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결속적 사회적 자본, 정치사회참여, 교량적 사회적 자본의 순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제어 : 청소년, 삶의 만족, 교량적 사회적 자본, 결속적 사회적 자본, 정치사회참여,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Abstract The degree of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is very low and the formation of social relationship through SNS is getting important to adolescent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if bridging social capital and bonding social capital through SNS and political-social participation affect the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Using 2012 Adolescents Social Media Usage Survey of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is study analyzed 4708 data by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ife satisfaction of male adolescents was higher than that of female adolescents. And the higher the level of bridging social capital and bonding social capital through SNS and political-social participation was, the higher the level of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On the basis of the results, practical suggestions to increase the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were discussed.

Key Words :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Bridging social capital, Bonding social capital, Political-social participation, SNS(Social network service)

Received 15 December 2014, Revised 25 January 2015

Accepted 20 February 2015

Corresponding Author: Sung-Hui Cho(Dept. of Social Welfare, Hyupsung University)

Email: chosh@uhs.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신체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성적 성숙과 호르몬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정서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기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이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징을 질풍노도의 시기, 주변인과 같은 용어로 설명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 사회는 대학 입시 중심의 교육제도와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리는 취업 준비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그 결과 청소년의 자살이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왕따 현상이나 가출 등 청소년의 삶의 질을 낮추는 환경적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1]. 이로 인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편으로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9세에서 17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2].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주관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는 이 청소년들이 향후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 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비교적 늦게 진행되기 시작되었고, 이는 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을 반증한다[3, 4]. 그동안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개인적 특성, 가족 관련 요인, 학교 관련 요인으로 대별되었다. 구체적으로 자아존중감, 우울성향과 같은 개인적 특성, 경제적 상황, 부모와의 관계와 같은 가족 특성, 교사와의 관계, 학업스트레스와 같은 학교 관련 특성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관련된 변인이었다[5]. 또한 친구 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며[6] 이는 또래 관계가 중시되는 청소년 시기의 특징과도 맞물리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과 정치사회적 참여 등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7, 8]. 우리 청소년들은 많은 시간동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체가 청소년의 삶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약 97% 이상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이 보급된 초기

에는 수동적으로 정보를 얻거나 오락을 하기 위해 이러한 매체들이 활용된 데 비해 점차 정보를 주고받거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쌍방향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이용에 활용되고 있다. 기존의 인터넷 이용은 익명성이 특징인 것에 비해 SNS는 자신을 공개한 상태에서의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한다[9]. 즉 SNS 활동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전제로 자신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SNS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생성되는 자원인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게 된다[10].

SNS는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기도 하고 정치사회적 참여를 촉진시키기도 한다[11]. 청소년 시기의 다양한 경험과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확산되면서 청소년의 참여 활동이 장려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인터넷의 보급은 청소년의 정치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증가시키는 맥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인 정치참여도 더 활발하다는 연구 결과[12]에서 확인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활발히 전개된 것은 인터넷이 확산된 2000년 이후이며, 두발제한반대 서명운동이나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등의 실제적 정치참여를 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11]. 이러한 정치적 참여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봉사활동, 문화활동, 동아리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참여를 하고 있다[13].

그렇다면 SNS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자본과 실제적 정치사회 참여 활동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그동안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4]는 있어 왔지만 SNS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진행된 연구는 거의 없으며, 다만 SNS활동이 청소년의 삶에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10]와 부정적이라는 상반된 연구결과[15]가 제시되어 있다. 다른 한편 청소년의 정치사회적 참여와 삶의 만족도를 주제로 한 연구 역시 아직 많지 않은 편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6]와 온오프라인 참여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7]가 있다. 이에 SNS 이용 등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 형성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된 시점에서 SNS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자본과 실제적 정치사회

적 참여활동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청소년 삶의 만족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 밝혀진 가족과 학교 관련 변인들과 더불어 다양한 변인들을 탐색하는 것은, 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우리 사회에서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여겨진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검증함에 있어서 청소년기의 발달단계에서 주요한 과업으로 제시되어지는 사회적 관계형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주요하게 활용되어지는 SNS를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과 실질적인 정치사회적 참여 행동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에 갖는 영향력을 검증한다. 궁극적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을 증진시키고, 청소년기 발달단계상의 과업인 사회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SNS의 기능적인 활용과 정치사회적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문헌고찰

2.1 청소년의 삶의 만족

삶의 만족도는 생활만족도, 삶의 질, 심리적 안녕상태, 행복감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온 개념으로 인간의 전반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행복이나 즐거운 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주관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대한 평가이다[14].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성별이나 경제 상태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부터 자존감과 건강 상태, 자아효능감, 학업 성취도,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양육방식, 섭식장애와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 등 아주 다양하다[18]. 그 중에서도 가족 관련 변수, 특히 부모와의 관계나 가족 기능의 영향력이 크다는 연구가 많다[19].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가족관련 영역과 학교생활 관련 영역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되고 있다[20].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에 대한 종단연구를 진행한 이순성[21]에 의하면 성별,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 요인과 부모와의 애착관계, 학업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가 개인 관련 변수들과 가족과 학교 관련 변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2.2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

사회적 자본은 사회나 개인과의 관계에 의해 생성되는 자원으로, 지속적인 관계 연결망, 즉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원이다[22]. 사회적 자본은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23] 사회적 자본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24].

다양한 사회적 자본의 특성 중 퍼트넘(Putnam)[25]은 사회적 자본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에서 생성된 교량적(연결적)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과 정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개인들 사이에서 생성되는 결속적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으로 구분했다. 교량적 사회적 자본은 여러 사람들과 넓지만 얕은 관계를 맺는 것으로 약한 연계의 형태를 띠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접하므로 새로운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고 수평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 이에 반해 결속적 사회적 자본은 개인들 간의 강한 연계의 형태를 띠고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에 배타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26].

온라인상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만 약한 연계를 특징으로 하는 교량적 사회적 자본을 갖게 된다는 연구결과[27]와 트위터와 같은 SNS 사용이 교량적 사회적 자본에 영향력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28]가 있다. 왜냐하면 SNS와 같은 온라인상에서는 가까운 관계보다는 새롭고 일회성 혹은 표면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속적 사회적 자본의 성격을 띠는 온라인상의 관계들도 있는데, 이는 오프라인에서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의 잠재적 관계를 더 발전시켜 결속적 사회적 자본이 되게도 하기 때문이다[10].

그동안 SNS 활동이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10]와 SNS 이용이 좋은 친구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기에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동시에 제시되었다[15]. 청소년의 경우 SNS를 자주 이용할수록 사회적 친구 관계를 더 많이 형성하고, 긍정적 피드백을 받았을 때 청소년의 사회적 자존감

과 삶의 만족이 높아졌고[29], 그 활동 정도가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15]. 그러나 SNS를 통해 형성된 교량적 사회적 자본과 결속적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2.3 정치사회참여 특성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

사회참여라는 용어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아리 모임 등의 단체 활동에서부터 자원봉사활동이나 선거참여나 항의시위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까지 모두 포함한다[13]. 이렇듯 사회참여라는 용어에 정치참여 활동도 포함되어 있지만,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의도하는 활동을 정치참여라는 용어로 구별하여 정의하기도 한다[30]. 본 연구에서 정치사회 참여 특성이라 함은 사회참여와 동일한 의미이지만, 기부나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서명운동이나 집회참여, 불매운동 등의 정치참여적 활동을 포함하고 있어 정치사회참여로 규정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특히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사회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았다[31]. 청소년의 경우 봉사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6]와 사회참여 활동이 공동체 의식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17].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SNS를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과 정치사회참여와 같은 경험을 통한 사회관계형성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봄에 있어서 전국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2년 6월에 전국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와 관련된 현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법을 활용하여 88개 고등학교와 76개 대학에서 고등학생 2,574명과 대학생 2,302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총 4,876명의 자

료 중 본 연구에서 활용되어진 주요변수에 모두 응답한 4,70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3.2 측정도구

3.2.1 종속변수: 삶의 만족

청소년이 삶의 전반에서 경험하는 주관적인 만족을 의미하는 연구의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2012년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데이터 중 현재 시점에서의 삶의 만족을 측정한 문항의 응답을 활용하였다. 삶의 만족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부터 “매우 만족한다(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2.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을 설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SNS를 통한 사회적 자본형성 특성, 정치사회참여 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그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과 경제 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성별은 “남자(1)”, “여자(2)”로 측정하였고, 경제수준은 가정형편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으며, “매우 못 산다(1)”에서 “매우 잘 산다(7)”의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NS를 통한 사회적 자본형성은 다양한 사회적 자본의 특성 중 SNS활동을 통해 형성되어지고 유지되어지는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는 교량적 사회적 자본과 결속적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교량적 사회적 자본과 결속적 사회적 자본은 심홍진과 황유선의 연구[32]와 급회조의 연구[10]의 문항들을 내용타당도를 고려하여 SNS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각각 6문항,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량적 사회적 자본과 결속적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교량적 사회적 자본 6문항과 결속적 사회적 자본 4문항의 내적일치도는 각각 Cronbach α =.870와 .882로 관찰되었다.

정치사회참여 특성은 청소년들이 나타내는 정치사회적 행동의 수준을 측정하는 5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각 문항들은 기부, 봉사, 서명운동, 집회참여, 불매운동에 대

한 경험을 측정하는 것으로 “있다(1)”, “없다(2)”로 측정하였고, 이를 역점수처리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사회참여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변환한 뒤 활용하였다. 정치사회참여 5문항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 $\alpha=.508$ 로 관찰되었다.

3.3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을 통한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삶의 만족을 포함한 주요 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주요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인 분석을 위해서 SPSS 22.0을 활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체 연구대상자 중 남학생이 2,381명(50.6%)으로 여학생 2,327(49.4%)에 비해 약간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청소년들의 교육상태에서는 고등학교 재학생이 2,429명(51.6%)으로 대학생 2,279명(48.4%)에 비해 조금 더 많았다. 고등학생 중에서는 2학년생이 831명(17.7%)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생 중에서는 1학년이 739명(16.7%)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성별과 교육상태에서는 연구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표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경제상태에 대한 연구대상 청소년들의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상태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193명(46.6%)으로 거의 절반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5점에 응답한 경우 1,001명(21.3%), 3점에 응답한 경우 813명(17.3%)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포를 반영하듯 경제수준 평균은 4.00($SD=1.06$)으로 나타났다.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2381	50.6
	Female		2327	49.4
Education	high school student	first grade	811	17.2
		second grade	831	17.7
		third grade	787	16.7
	university student	freshman	739	15.7
		sophomore	732	15.6
		junior	406	8.6
		senior	402	8.5
economic status	1(very poor)		81	1.7
	2		310	6.6
	3		813	17.3
	4(usually)		2193	46.6
	5		1001	21.3
	6		249	5.3
	7(very good)		61	1.3
	M(SD)		4.00(1.06)	

4.2 주요변수들의 특성 및 상관관계

청소년의 삶의 만족을 설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모델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의 특성과 변수 상호간의 관계는 <Table 2>와 같다. 먼저 SNS를 통한 사회적 자본 특성 중 교량적 사회적 자본의 평균은 2.57($SD=.60$)로 관찰되었고, 결속적 사회적 자본의 평균은 2.61($SD=.72$)이다. 이는 사회적 자본의 점수 범위를 고려하여 볼 때 두 특성 모두 보통의 수준이며, 결속적 사회적 자본 형성이 교량적 사회적 자본 형성에 비해 약간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정치사회참여의 수준은 평균 1.37($SD=.23$)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사회참여의 응답범주를 고려하여 볼 때 청소년들은 낮은 수준의 정치사회참여 행동 경험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의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은 평균 3.46($SD=.93$)으로 응답범주를 고려하여 볼 때 보통보다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삶의 만족과 주요 변수들과의 관계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교량적 사회적 자본($r=.071^{***}$), 결속적 사회적 자본($r=.081^{***}$), 정치사회참여(.069 ***)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량적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결속적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사회참여 행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Table 2〉 Variables' characteristics and correlation

Categories	Life Satisfaction	Bridging social capital	Bonding social capital	political-social participation
Life Satisfaction	1			
Bridging social capital	.071***	1		
Bonding social capital	.081***	.449***	1	
political-social participation	.069***	.194***	.154***	1
M	3.46	2.57	2.61	1.37
SD	.93	.60	.72	.23

*p<.05, **p<.01, ***p<.001

4.3 삶의 만족의 영향요인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봄에 앞서서 연구모델에 투입된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보았다. 상관계수와 공차한계(Tolerance), 분산팽창요인(VIF)의 크기를 통해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값은 .449, 공차한계는 가장 작은 값이 .774, 분산팽창요인은 가장 큰 값이 1.293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로 인해 연구모형의 추정이 왜곡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을 설명함에 있어서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과 경제수준, SNS를 통한 사회적 자본형성 요인으로서는 교량적 사회적 자본과 결속적 사회적 자본, 정치사회참여요인으로서는 정치사회참여행동을 투입한 본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사회관계형성을 중심으로 청소년 삶의 만족을 설명하고자 한 본 연구의 모델은 전체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관찰되었다($F=40.064$, $p<.001$, $R^2=.041$). 연구 모형에 투입된 변수 중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성별($t=-4.365$, $p<.001$)과 경제수준($t=11.252$, $p<.001$)은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를 통한 사회적 자본형성 중 교량적 사회적 자본($t=2.408$, $p<.05$)과 결속적 사회적 자본($t=3.412$, $p<.001$) 역시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사회참여 역시도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고려

한 상태에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t=3.227$, $p<.01$). 즉 여학생에 비해서 남학생의 삶의 만족이 높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은 증가하며, SNS를 통해 형성된 교량적 사회적 자본, 결속적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증가하고, 정치사회참여의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증가하는 것이다. 연구 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에서는 경제수준($\beta=.161$), 성별($\beta=-.063$), 결속적 사회적 자본($\beta=.055$), 정치사회참여($\beta=.047$), 교량적 사회적 자본($\beta=.039$)의 순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Life Satisfaction

Categories	B	β	t
Gender	-.117	-.063	-.4365***
economic status	.140	.161	11.252***
Bridging social capital	.060	.039	2.408*
Bonding social capital	.070	.055	3.412***
political-social participation	.187	.047	3.227**
F	40.064***		
R ²	.041		

*p<.05, **p<.01, ***p<.001

5. 결론 및 함의

급격한 변화와 사회적인 상황으로 인해 매우 낮은 수준인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가족 및 학교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생활방식의 변화를 가져온 인터넷의 보급과 SNS의 이용 증가를 통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형성이 점차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SNS를 통해 형성된 교량적 사회적 자본과 결속적 사회적 자본, 실질적 정치사회 참여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높고, 경제수준을 높이 인식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들[18, 21]과 일치하는 것으로, 남학생

의 삶의 만족도가 여학생보다 더 높은 것은 남학생들의 보다 단순하고 낙천적인 성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1]. 다른 한편으로는 성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율성과 삶의 목적을 더 많이 경험함으로써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볼 수 있다[18]. 이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서의 성장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삶의 만족도가 더 낮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와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여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수준을 높이 인식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절대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 동시에 청소년들이 상대적인 빈곤에 덜 노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SNS를 통해 형성된 교량적 사회적 자본과 결속적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이 증가했으며, 이는 사회적 자본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기존의 연구결과들[14, 23, 24]과 그 방향이 일치하는 결과였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SNS 이용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15]와 일치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그동안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SNS를 통한 교량적 사회적 자본과 결속적 사회적 자본이 일반적인 사회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결속적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이 교량적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보다 더 컸다는 연구결과는 SNS를 통해 긍정적 피드백을 받았을 때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연구결과[29]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직접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과 같이 소수지만 강한 관계망이 다수와의 약한 관계망보다는 삶의 만족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SNS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좀 더 긍정적인 결속적 사회적 자본의 형태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강화와 오프라인 모임과의 연계, 사이버 멘토 제도의 도입 등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SNS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나 개인정보 유출, 중독현상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교육과 온라인상에서의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교육 영역과 미디어 정책과 교육을 담당하는 영역과의 협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참여 역시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활동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16, 17]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하게 되는 성인으로의 전환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정치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통해 이들의 삶의 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정치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동체 의식에 대한 교육과 지역사회와의 유대 및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시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다양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자신의 의견을 기능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학습할 수 있는 청소년기의 자치활동이나 집단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SNS를 통한 사회적 자본과 실질적 정치사회 참여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본 연구는 몇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먼저 연구에서 활용되어진 데이터가 2012년에 수집된 것으로 변화의 속도가 빠른 청소년들의 특성과 SNS가 포함된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빠른 변화로 인해 연구가 발표되는 2015년과는 일정 수준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함으로 인해 연구모형 설계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변수가 제한되어질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향후 SNS를 통한 사회적 자본과 정치사회 참여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적인 연구와 개인, 가족, 학교를 중심으로 한 특성들과의 관련성, SNS 활용 형태와는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질 필요성이 있다.

REFERENCES

- [1] J. S. Park & S. H. Hwang,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s of runaway impulse influencing adolescents' runaway. Korean Journal of Youth

- Studies, Vol.17, No.10, pp.1-21, 2010.
- [2] Yonhapnews, Korean children's life satisfaction is the lowest among OECD nations, <http://www.yonhapnews.co.kr> (November 04, 2014)
- [3] M. S. Lee, Factors affecting adolescents' quality of life. Ph.D. dissertation, Baeksuk University. 2006.
- [4] R. Saha, E. S. Huebner, S. M. Suldo, & R. F. Valois,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and parenting. *Child Indicators Research*, Vol. 3, Iss. 2 pp.149-165, 2010.
- [5] H. W. Hwang, A research on protective factors influencing on adolescents' quality of lif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8, No. 3, pp.1-26, 2013.
- [6] H. W. Kim, & M. A. Hong, Exploration of the extents and factors explaining well-being among Korean adolescents, *Korea Youth Research*, Vol. 14, No. 2, pp.269-297, 2007.
- [7] C. Albanesi, E. Cicognani, & B. Zani. Sense of community, civic engagement and social well-being in Italian adolescents.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Psychology*, Vol. 17, pp.387-406, 2007.
- [8] L. Ashely, E. Heubner, M. Patrick, and V. Robert, Life satisfaction and student engagement i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40, No. 3, pp.249-262, 2011.
- [9] K. T. Lee, M. J. Noh, M. O. Kwon, & H. U. Yi, A study on the relations among SNS users' loneliness, self-discloser,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Korea Internet e-Commerce Studies*, Vol. 13 No. 2, pp.19-39, 2013.
- [10] H. J. Keum, The Effects of Social Media on Participatory Social Capital : A Comparative Study of Bridging and Bonding Networks between Korean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Vol. 24, No. 5, pp. 9-46, 2010.
- [11] C. H. Lee & S. H. Mo, An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on political, social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focusing on post-materialistic value and social media.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14, No. 4, pp.143-164, 2012.
- [12] H. J. Zuniga, N. Jung, & Valenzuela, Social media use for News and individuals' social capital, civic engagemen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l. 17, pp.319-336, 2012.
- [13] G. N. Park, The effect of youth participation on a sense of commun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6, No. 10, pp.273-306, 2009.
- [14] S. D. Chung, & M. H. Sung,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a comparison of three different age group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2, No. 4, pp. 249-272, 2012.
- [15] P. M. Valkenburg, & J. Peter, Social consequences of the Internet for adolescent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 18, No. 1, pp.1-5, 2009.
- [16] J. H. Kim, The effects of youth volunteering on community consciousness and life satisfaction mediated by self-esteem and ego-resilience.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14, No. 1, pp.41-62, 2012.
- [17] J. S. Park, The effect of social and internet participation on life satisfaction in early adolescent: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Adolescence Welfare*, Vol. 13, No. 4, pp.47-69, 2011
- [18] H. W. Kim & M. A. Hong, Exploration of the extents and factors explaining well-being among Korea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4, No. 2, pp.269-297, 2007.
- [19] S. M. Suldo & S. Huebner, The role of lif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oritative parenting dimensions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66. pp. 165-195, 2004.
- [20] M. J. Kwak and Y. M. Kim, A study of Influence on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Focusing on strengths of family life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in the IT-based socie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 3, pp.49-57, 2013.

- [21] S. S. Lee. A study on longitudinal analysis of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and its related variables. Phd. dissertation, pp. p. 63,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22] J. S. Coleman,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 pp. S95-S120, 1988.
- [23] G. S. Park, Social Capital and Quality and life. The Journal of Aisatic Studies, Vol. 45, No. 2, pp. 109-139, 2002.
- [24] J. G. Lee, Life satisfaction and social capital- focusing on the effect of civil participation, trust, and social capit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Studies, Vol. 22, pp. 5-40, 2009.
- [25] R. D. Putman,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Y: Simon and Schuster, 2000.
- [26] N. H. Chung, & H.G. Song, Role of social capital and organization citizenship behavior on continuous intention to use of social network service. The e-Business Studies. Vol.. 15, No. 3, pp. 485-506.
- [27] C. Steinfield, N. Ellison, & C. Lampe, Social capital, self-esteem, and use of online social network sites: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9, pp. 434-445, 2008.
- [28] H. J. Shim & Y. S. Hwang, The relationship between micro-blogging services and social capital among the early adopters of Twitter.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Vol. 54, No. 5, pp. 327-348., 2010.
- [29] P. M. Valkenburg, J. Peter, and A. P. Schouten, Friend Networking sites and their relationship to adolescents' well-being and social self-esteem. Cyberpsychology & Behavior, Vol. 9, No. 5, pp. 584-590. 2006.
- [30] S. Y. Shin & S. W. Lee(2012).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Focusing on Twitter & Facebook users' political participation. The Cyber Communaion, Vol. 29, No. 4, pp. 191-232.
- [31] H. S. Gweon, The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self-reported health.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188, No. 5, pp. 995- 1008, 2009.

- [32] H. J. Shim & Y. S. Hwang, Micro-blogging on Uses and Gratification Perspectives-Twitter.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Vol. 24, No. 2, pp. 192-234, 2010.

박 소 영(Park, So Young)



- 1988년 2월 :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문학사)
- 1991년 8월 :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문학석사)
- 1995년 2월 :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문학박사과정수료)
- 2005년 8월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08년 8월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가족복지, 청소년복지, 가족치료
- E-Mail : nillyria@senyung.ac.kr

조 성 희(Cho, Sung Hui)



- 2001년 2월 :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행정학사, 문학사)
- 2003년 8월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11년 2월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가족복지, 청소년복지, 가족치료
- E-Mail : chosh@uhs.ac.kr